III. 해외마케팅.투자정보 하이라이트

■ 건설 붐에 편승한 사우디 건축전시회 탐방기

- 2004.10.10-14 기간 중 사우디의 RIYADH EXHIBITION CENTER 에서 사우디 건축전시회가 개최되었음. 최근의 고유가에 따른 사우디 재정 수입 증가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총 7 개의 전시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각 업체들이 전시 장치에 투자를 많이 해 화려하고 현대식으로 구성된 전시회였음.
- VOLVO, HESS GROUP OF COMPANIES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국도 건설기계공업협회 주관으로 10 개사가 참여한 150S/M 의 한국관을 구성하였음. 참가 국가별 참가업체 수는 사우디 138 개사, 이태리 24 개사, 터키 20 개사, 중국 12 개사, 인도 10 개사, 한국 10 개사, UAE 7 개사, 독일 5 개사, 바레인 2 개사, 레바논 2 개사, 영국, 폴란드, 시리아, 쿠웨이트, 브라질, 이집트, 이란, 대만 등 기타 25 개사로 총 20 개국 240 개사가 참가하였음.
- 중국, 독일, 인도, 이태리, 터키, UAE, 한국 등 7 개국은 국가관을 구성하였는데 특징적인 사항은 그간 발생한 對서방인 테러와 관련 주 참가국인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 업체가 직접 참가하지 않고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하였음.
- 전시 면적은 4 만 평방미터로 주요 전시 품목은 냉난방 설비, 건축 마감재, 건축 자재, 트럭, 특장차 및 크레인 등 건설 장비 및 부품, 타일, 전기 설비,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건설 신기술, 조명 설비, 조명 설비, 보안 장비, 태양 에너지 설비, 수처리 설비, 실내 가구 등이었으며 방문객은 총 3 만여 명에 달했다. 한국관의 경우 방문객은 약 1 만 3 천명, 상담 바이어는 약 1 천 3 백 명이었으며 상담액은 약 미\$84 백만, 계약액은 미\$10.1 백만을 기록했다.
- 유럽 업체들이 주로 건축 관련 신기술 및 중장비를, 아시아 업체들은 건축 기자재를 중심으로 전시한 가운데 한국관과는 별도로 대우중공업의 현지 에이전트가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옥외관을 임차해 중장비들을 전시함으로써 전시 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참관한 한국인들을 가슴 뿌듯하게 하였음.
- 한국관 참가 업체 전시 품목에 대한 시장 동향과 반응을 보면 스위치류, 어태치먼트류의 건설 기계용 부품에 대해서는 사우디 내 자체 생산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업체들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국내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독점 대리권을 요청하였음.
- 유압펌프 및 모터, 부품에 대해서는 사우디 내 송유관 매설공사, 전후 복구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어 건설 장비의 수요와 가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압기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이 선진국 제품의 절반임에도 품질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 제어 장치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을 독일 등 유럽과 미국제품을 사용 중에 있으나 한국 제품에 대해 호감도가 높았으며 거래를 강력히 희망하였음.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독일에서 주로 수입중이나 가격 대비 월등히 우수한 한국 제품을 구매코자 하였던 바, 국내업체의 노력에 따라 독일, 이태리 제품의 대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햄머 비트 등 시추 장비는 미국 및 스웨덴이 전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우디에서는 미국 제품이 약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제품이 한국 제품에 비해 3 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산의 품질 수준이 미국 제품의 70-80%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사우디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음.
- 한국관 참가 업체는 중소기업의 유망 전시회 참가가 자금 능력으로 애로가 있음을 호소하고 현행의 임차료 지원을 50%, 장치비 지원을 35%를 모두 50%로 확대해야 하며 또한 중동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 물류 기지를 건설하여 유통 기지 역할 및 A/S 전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희망하였음.

(문의처 : 리야드무역관 유호상 hosing@kotra.or.kr)